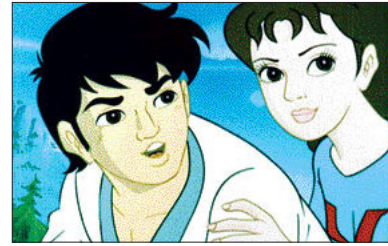


[영화]

‘로봇 태권 V’ 다시 날다

‘달려라 달려 로봇야~’

30년만에 디지털화 재개봉... 가족 관객객 몰려



주인공 훈이와 영희



훈이 목소리를 더빙했던 김영욱

‘추억’이 현실이 되었다. 단순히 영화를 넘어 30~40대들에게 어린 시절의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깊이 새겨진 ‘로봇 태권 V’가 30년만에 다시 찾아온다. 30년전 ‘로봇 태권 V’와 ‘마징가 제트’는 영원한 라이벌이었다. ‘달려라 달려 로봇야~’로 시작되는 ‘로봇 태권 V’ 주제는 전국 어린이들의 애창곡이었다. 특히 TV로 방영된 ‘마징가 제트’와 달리 영화관에 가야만 볼 수 있었던 ‘로봇 태권 V’는 당시 꼬마들의 ‘극장’에 대한 ‘호기심’까지 만족 시키며 절정의 인기를 누렸다.

국산 애니메이션으로는 드물게 18일 150개관에서 개봉하며 30년만에 기지개를 켜 ‘태권V’는 현재 문근영과 같은 기획사에 소속된 ‘한 식구’다.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경쟁작들을 몰리치고 예매율 1위를 차지하기도 한 ‘로봇 태권V’는 어린 시절 추억을 잊지 못한 부모들과 아이들을 함께 극장으로 불러오고 있다.



‘로봇 태권 V’의 태권도 실력은 전문가들의 감정결과 약 3단 정도로 알려졌다. 오른쪽 위안은 귀여운 ‘강룡로봇’.

▲오래 전 친구가 돌아왔다.

김청기 감독이 1976년 만든 ‘로봇 태권 V’는 당시 서울 관객 18만명을 동원하며 흥행 대박을 터뜨렸고 전국의 꼬마 관객들을 극장으로 끌어들이었다. 아이들은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되기를 손꼽아 기다렸고 김 감독은 ‘우주작전’ ‘수중특공대’ ‘황금날개의 대결’ 등을 잇따라 발표하며 아이들을 열광시켰다.

영화는 태권 V 개발자인 김박사의 아들이자 태권도 세계챔피언인 훈이가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세계를 지배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카프 박사와 벌이는 대결을 줄거리로 하고 있다.

여기에 물주전자와 쓰고 다니는 귀여운 ‘강룡로봇’, 훈이의 절친한 친구이자 조력자인 ‘영희’, 인조 인간 ‘메리’ 등 다양한 캐릭터들이 보는 재미를 더한다.

이번에 상영된 ‘로봇 태권 V’는 사라진 줄 알았던 1편의 복사본이 발견된 후 2년간 5천여명이 작업해 디지털로 완벽하게 복원해낸 작품이다.

▲숨겨진 이야기들

당시 주인공 ‘훈이’ 목소리를 더빙한 사람은 탤런트 김영욱이었다. ‘올드미스 다이어리’ 등 인기 프로에서 개성 있는 연기를 펼치고 있는 김영욱은 낭랑한 목소리로 씩씩한 훈이 모습을 잘 표현해 냈다. 인기절정의 주제는 당시 영화음악을 맡았던 최창권 음악감독의 아들인 초등학생 최호성이 불렀다. 후에 그는 ‘세월이 가면’이라는 노래로 많은 사랑을 받은 가수가 되었다.

또 태권 V의 태권도 실력은 전문가들의 감정결과 약 3단 정도로 알려졌으며 김청기 감독은 태권 V를 만들 당시 광화문에서 있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모델로 윤곽을 잡았다고 한다. 그밖에 차고 넘치는 관객들을 버스를 대절해 이웃한 극장으로 실어날랐다는 에피소드 등이 전해진다.

▲단순한 로봇가 아니야

지난해 산자부는 태권 V에게 ‘대한민국 로봇 등록증’을 부여했다. 이름 ‘로봇 태권 브이’ 주소는 대한민국 태권브이 기지, 분류는 군사용 로봇이었다. 등록증에 따르면 태권 V는 높이 56m 무게 1천400t의 위용을 자랑한다.

저작권과 관련을 소유하고 있는 영화사 신씨네는 ‘로봇 태권V’를 고유명사로 등록하고 캐릭터 관리를 위해 별도 법인을 만들었으며 앞으로 3D 애니메이션 제작, 테마파크 건설, 뮤지컬 공연, 브랜드 스포츠, TV 시리즈 방영, 게임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태권 V는 현재 문근영·김태희가 소속된 ‘나우 액터스’와 정식 계약을 맺고 일반 연예인들처럼 체계적인 매니지먼트도 받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주말 극장가	
영 화	상영극장
마파도 2 300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화제를 모았던 ‘마파도’의 속편. 여운계·김을동·김형자·이문식 등이 주연을 맡았다. 12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머스 제일, 스타박스, 씨너스 전대, 하이
로봇 태권 V 30년만에 다시 찾아온 한국의 대표 애니메이션으로 3년에 걸쳐 디지털로 완벽 복원됐다. 전체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하이
렌트 동명의 뮤지컬을 영화로 옮긴 작품으로 아담 피스칼 등 유명 뮤지컬 스타가 출연한다. 15세 관람가.	롯데(첨단), 콜롬버스(하남), CGV(상무), 하이
산나는 동물농장 우리를 탈출한 동물들의 이야기를 그린 애니메이션	롯데(첨단),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하늬 몸은 스무살이지만 정신 연령은 일곱살인 상은의 성장기. 연기 배우 배종옥·강혜정이 주연을 맡았다. 전체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하이, 프리머스 제일, 스타박스
에디곤 ‘반칙의 제왕’을 잇는 대작 판타지 영화. 한 소년이 사악한 왕에 맞서 나라를 지키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 12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하이, 프리머스 제일, 스타박스
미녀는 괴로워 전신 성형수술로 S라인의 미녀로 탄생한 여주인공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다. 12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하이
박물관이 살아있다 범이던 전시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기이한 박물관에 취업한 경비원의 좌충우돌 모험이 펼쳐진다. 전체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 제일, CGV(상무·첨단), 하이, 씨너스 전대
묵진 일본의 인기 만화를 영화로 옮긴 대사시극으로 유덕화·안성기 열연한다. 12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하이, 스타박스
데스노트-라스트 네임 동명의 인기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로 관객 80만명을 동원한 ‘데스노트’의 후편이다. 12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하이, 스타박스
데지뉴 면접 위장된 톤이 스포츠 감독이 호흡을 맞춘 액션 스릴러. 12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하이, 스타박스
블러드 다이아몬드 아프리카 내전을 배경으로 다이아몬드를 둘러싸고 벌이는 영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열연이 돋보인다. 18세 관람가.	롯데(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스타박스

주목! 이영화

몸빼 바지 억척 할매들 또 일냈다

마파도 2

지난 2005년 영화계의 이변 중 하나는 바로 ‘마파도’의 성공이었다. 50~60대 중년 여성들, 그것도 몸빼 바지를 차려 입은 시골의 억척 할매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마파도’가 전국 300만명의 관객을 끌어모으리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전편의 인기를 등에 업고 찾아온 ‘마파도 2’의 줄거리는 우연히 마파도에 도착한 두 남자가 다섯 할매의 시달림을 받으며 우스꽝스럽게 망가진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출연진 역시 여운계·김형자·김을동·김

해연 등 할매들과 이문식이 그대로 모습을 드러낸다. 여기에 김수미의 사촌언니로 김지영이, 군에 입대한 이정진 대신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을 통해 이름을 알린 이규환이 이문식과 함께 호흡을 맞춘다.

전편에서 입만 열면 욕을 내뱉었던 김수미는 조형기·주현 등과 함께 카메라로 출연하며 할머니들의 처녀 시절을 1인 5역으로 소화해낸 이인혜의 연기도 눈길을 끈다.

영화가 끝났다고 해서 금세 자리를 뜨지 말 것. 엔딩 자막과 함께 여주인공들의 꽃다운 20대 사진이 ‘좌르륵’ 올라온다. (12세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드러내 놓고 ‘스왑핑’... ‘지금 사랑하는’ 2월 크랭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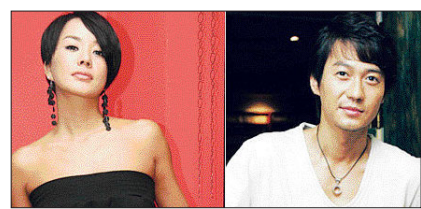
영화계는 지금

드러내 놓고 ‘스왑핑’을 다룬 영화가 제작된다.

영화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습니까?’(감독 정윤수, 제작 씨네2000)는 엄정화, 박용우, 이동건, 한채영으로 주연진용을 갖추고 2월 초 크랭크인한다.

‘지금 사랑하는’은 결혼 3년차 두 커플이 상대와 하룻밤 사랑을 나누고 급기야 연인으로까지 발전되는 과정과 그 이후 선택을 그린다.

엄정화-박용우 커플은 연애 5년에 이은



〈엄정화〉 〈박용우〉

결혼 3년차로 힘겹게 살지만 사랑이 넘치는 부부로 등장한다. 이동건-한채영은 불과 2개월간의 연애 후 결혼한 3년차 부부. 모든 게 여유로우며 결혼과 연애는 별개인 신세대 커플이다.

‘에스터데이’의 전윤수 감독이 연출을 맡아 파격적인 주제인 만큼 코믹하고 유머러스한 대사와 상황으로 풀어갈 예정이다.

광주 CBS 일본 선교 여행

후쿠오카는 해운선(신호스)·시마네(신호스)·미야(신호스)·후쿠오카(신호스)를 위한 비전과 도전

일시 2차 2007년 2월 14일(월)~15일(화) 3차 2007년 3월 14일(수)~15일(목) 4차 2007년 3월 17일(토)~22일(목)

모집인원 60명(선착순)

합가금액 1차 55만원 2차~3차 57만원(선착순 마감)

예약금 110,000원(예약금수시 환불불가)

입금계좌 광주은행 150-137-005137 예금주: 기독교 광주방송

입수문의 062-375-8500~1

주최 광주CBS

공유하셨던 일본선교여행

1. 선교의 열정과 헌신에 감동하는 선교사님들의 열정적인 모습과 헌신적인 자세를 배우고자 합니다.

2. 선교의 열정과 헌신에 감동하는 선교사님들의 열정적인 모습과 헌신적인 자세를 배우고자 합니다.

일본선교여행

1. 선교의 열정과 헌신에 감동하는 선교사님들의 열정적인 모습과 헌신적인 자세를 배우고자 합니다.

2. 선교의 열정과 헌신에 감동하는 선교사님들의 열정적인 모습과 헌신적인 자세를 배우고자 합니다.

여행준비서류

- 여권신청서(1부) - 2007년 1월 15일(수)까지
- 여권신청서(1부) - 2007년 1월 15일(수)까지
- 여권신청서(1부) - 2007년 1월 15일(수)까지
- 여권신청서(1부) - 2007년 1월 15일(수)까지
- 여권신청서(1부) - 2007년 1월 15일(수)까지
- 여권신청서(1부) - 2007년 1월 15일(수)까지

일본VISA

- 여권신청서
- 여권신청서
- 여권신청서
- 여권신청서
- 여권신청서
- 여권신청서

도입내역

- 여권신청서
- 여권신청서
- 여권신청서
- 여권신청서
- 여권신청서
- 여권신청서